발행 전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소식지편집위원회/ 발행일 2018. 10. 8/ 주소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177 / 전화 044-862-9093/ 팩스 044-862-9093

주민공동체가 만드는 공동체이야기
전의(全義) 마을신문

전의다움

2018. 10

신문모아보기

2. 칼럼

인물

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심지회의

4. 기관.단체활동

전의농협

7. 전의역사문화탐방

왕의물 축제

행복마을 전의소식은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 되어지는 과정을 면 민이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창구이자 함께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전의면 소식지 입니다.

언제든지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마을관련기사 및 이야기 제보: 편집위원회 044-862-9093 / 광고 및 후원: 010-5307-9083(추진위원장 황우성)

전의다움

10월, 전의마을신문 '전의다움'으로 새 단장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이야기의 장으로 엮어내,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축제가 기획되고 있다. 바로 전의 골목문화축제가 그것이다.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 축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며 웃음 꽃 피우는 공동체 골목문화축제이야기이다.

전의소식 주민기자 윤혜란

칼럼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방향과 과제

백기영
(유원대 교수,전의농촌중심지사업PM단장)

전국 농촌지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읍면 소재지역에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생활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사업이다. 농촌 읍면지역은 인구감소와 상권쇠퇴로 인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어 농촌지역은 더욱 쇠퇴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읍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심지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고유의 지속가능하고, 정체성이 확립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 공동체가 활발해야 한다. 농촌중심지의 문화·복지시설 확대로 주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켜 배후지역의 경제·문화·복지·공동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2016년 착수되어 2020년까지 진행될 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은 명확하다. 전의의 역사 문화적 자산에 기반을 두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의 사업화를 모색해 가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역량을 고양하며, 융합과 공유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립형 농촌 중심지로의 발전해 가야 한다. 전의는 이를 위해 세종의 역사문화 1번지, 살고 싶은 행복전의를 비전으로 교육문화, 경제 활성화, 복지 및 주민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과 활발한 교감 속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활동도 모범적이며,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될 협동조합도 차분히 준비 중이다. 지역축제를 통해 전의 모든 주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차제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다양한 중심지 사업의 진행상황과 모범사례를 마을신문, 기자단 취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해 가자.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주민 주체의 사업실행력을 시도해보는 의미가 있다.

컨설팅을 사전에 진행하고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발표회를 갖는 등 성과를 지역 전체로 공유하도록 하자. 몇 년째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교육과 리더교육은 참신한 교육방식을 도입해 참여도를 높여 가자. 강의식 방식을 탈피하여 찾아가는 교육방식을 강구하되 모범 중심지사업지구와의 교류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자. 전의 주변의 산업단지 종사자들은 전의 발전의 보배 같은 존재이다.

기업종사자들과의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 기업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초청하는 행사, 동아리 회원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행사도 마련하자. 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향후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주민조직으로 성장되도록 실질적인 교육 사업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할 주체 양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추진위원회와 PM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PM단은 전문분야별 자문을 수행하고, 사업공정관리를 위해 사업전반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모니터링 해가야 한다.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 중심지 주민에서 배후마을까지 사업이 확산되어야 한다. 전의 산업단지 종사자들과의 교류와 참여를 늘려나가자. 중심지 상인들의 참여도 절실하다. 지역 특화자산인 조경수를 부각시켜 가야하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어린이와 학부모, 주부 등의 다양한 계층이 사업의 주인이 되도록 하자. 열린 사업진행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의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자.

정부주도 농촌개발이 사람중심, 네트워크 활동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과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색,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개발 추진이 농정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전의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확충하고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다.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지역의 리더 양성과 인적자원을 발굴하며, 교육과 학습을 통한 공동체의 경쟁력을 높여가자. 마을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지역 마케팅도 주민 주도로 진행해 가자.
역량 있는 마을, 준비된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시대이다. 스스로 준비된 곳에 발전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된다. 이제 농촌이 국가혁신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성공모델이자 발전전략이 되고 있다. 전의는 농촌중심지사업과 농촌공동체의 성공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백기영
유원대학교 교수,전의농촌중심지사업PM단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 주요내용은 예산에 관한 논의였다. 시장상인회 집기 임대에 대한 문의는 행정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의 역 주변 무대 설치 20평, 음향, 천막 80동 임대는 확정 되었다.

세부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는 전의초에서 사생대회와 인형극 1회, 영화상영, 전통놀이는 확정되었다. 메인 무대는 개막공연, 마을음악제, 십시일반음악제는 출연자리스트 취합 중이다.

부스에 따라 운영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야간조명이 필요한 곳을 선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생대회는 당일 심사하여 당일 발표하기로 했다.

편집위원회

기사작성 첫 장에 제목과 페이지를 표기하며 기사 앞에는 번호 없이 작성하고 제목은 신문 중앙에 위치시키고 사진은 크게 편집하며 , 조직 이름은 빼고 호감도 있는 기사제목을 주제에 맞게 사용 하기로 하였으며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다.

5면은 어린이 관련기사 를 쓰고 우리마을이야기에는 금사리 반딧불이축제 기사작성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월호 신문에는 왕의물축제, 골목축제, 뉴딜사업공청회, 추석, 체육대회기사 필요하다.

축제기사 작성 후 사진 10.6 장을 촬영하여 인쇄하며 기자 을 발굴 하고 전의중학교(꿈굼터,사회교과교사), 전의초등학교, 학부모회, 기업동아리 천영옥담당사무장이 담당한다.

최종내용 확정 사업관련기사 는 사무국, 편집자문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월1회 파견하기로 했다.

칼럼의뢰는 백기영교수(김동호 담당)하며, 9월 28일 금요일 원고마감하기로 하였다.

뉴딜사업기사는 신병윤교수 의뢰(기사의뢰 김동호 담당) 진은 2018년 09월 29일 .천영옥 사무장담당하기로 하였고, 우편물 발송시 되돌아오는 발송은 정리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의

브랜드공모전 진행방법 결정과 “전의다움”외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다.

2018년 09월 27일까지 브랜드네이밍 공모가이드를 모집하여 밴드에 게시하기로 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은 2019년으로 미루기로 했으며 2018년 국내선진지견학장소는 섭외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 2018년 11월 7일로 계획하였던 견학일정을 수정하지 안았다.

청소년문화센터 건축예산이 초과됨으로 건축비 절감 또는 비용충당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백년쉼터 리모델링 취소, 토지 매입비 잔액 사용 등)

기존 리더교육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실무자교육, 학부모 견학 등.

직원조합원 대상 교육으로 변경, 수강대상은 모든 추진위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전의특산물공모전 진행상황 보고(자료첨부)
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오후14시 이장단 협의

회장에서 모든 이장에게 천영옥 사무장이 사업설명 홍보를 했다.

사업담당자는 이정언, 성수은이고 축제추진사무국 인원보강으로 이지영 전의초 학부모회장이 보강되었다. *전의소식 주민기자*

〈 후원인을 모십니다〉

따뜻하고 정감있는 고향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의가 보내는 소식!
우리 동네
이런저런 정겨운 모습들을
꾸며 봅니다.

전의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원고투고와 구독 쉬청을 바랍니다.
우리 전의 지역 역사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기 위해
든든한 후원 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지나간 자녀들 격려해주시는 마음
고향계쉬 부모님 그리워하는 마음
고맙게 받겠습니다.

후원계좌 : 351-0897-6663-23(농협)
예 금 주 : 황우성 전의면농촌중심지활성화

전의중학교 중심지활성화 건축 설명

기관.단체활동

농민과 면민이 함께하는 전의농협

❑ PLS(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교육 실시

9월 10일 전의농협 문화복지센터 2층에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피옥자 계장의 강의로 하나로마트 출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기자 류정훈

'세종시장배 궁도대회'로 동운정 건축을 경축하다

지난 9월 9일 일요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남녀 궁도대회'가 전동면 청람리에 위치한 '동운정(東雲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세종시 4개소의 국궁장과 대전, 천안을 비롯한 인근시의 20여 개 국궁장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맘껏 발휘하며 서로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동운정 사두(이상길)의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세종시 궁도협회장(협회장 황우성)의 인사말로 대회는 화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직접 활을 내는 궁도인인 이재현 시의원의 축사에는 박수가 모아졌다.

맑고 푸른 가을 날씨 속에서 선수들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연습의 순간들을 가슴에 담으며 최선을 다한 결과, 단체전에서는 1위 대전 대동정, 2위 아산 배방정, 3위 세종 금덕정에서 각각 메달을 차지하였고, 개인전에서는 장년부 세종 금덕정 안종현 선수, 노년부 대전 보문정 황종구 선수, 여자부 대전 무덕정 방규숙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동운정'이 새롭게 개축되면서 좋은 환경조건에서 궁력을 연마할 수 있음을 타 지역의 선수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런 사고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 분들의 도움과 숨은 봉사의 손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과 정신력을 발휘하여 동운정이 세종시 대표되는 정(亭)으로 우뚝 선 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다.

옛 선비들이 문(文)에 그치지 않고 무(武)를 겸비하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활을 당기는 과정에서 체력단련의 운동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수련할 수 있다는 점이 궁도의 특징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면서 동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종시 궁도의 발전을 위해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황우성 세종궁도 협회장과 이하 임원들, 궂은 날씨에도 매일 같이 궁도인들이 함께 하기에 세종시의 궁도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민기자 강계련

아이들 세상

학부모와 함께한 Special day

-전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 수업공개 및 미술 캠프-

요즘 하늘을 보면 어떤 수식어로도 이 푸르름을 절적히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빛깔을 볼 수 있다.

하늘이 더없이 드높은 가을을 맞은 9월의 어느날 전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을 가졌다.

이 날 각 학급에서는 교통기관이라는 주제하에 특색있는 여러 수업을 준비하였다.

졌다. 여러 선생님들이 준비한 다양한 수업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신호등 빵, 계란 배 만들기 등의 재미있고 맛있는 요리활동과 영화 트렌스포머처럼 다양한 교통기관으로 변해보는 신체표현, 교통안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의 다양한 교통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

공개 수업을 마친 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미술 캠프가 마련되어 화가 마티스라는 주제로 평소 접하지 못했던 여러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해보았다. 스텐실을 이용한 손수건 만들기, 날개를 이용해 미로를 빠져나온 이카루스 이야기, 마티스의 명화들을 감상하고 트릭아트 포토 존에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 날 아이들의 활동이 마친 후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즐겁게 지내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교사들 또한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 있었고 아이들의 많이 자란 모습이 기특했다”며 이날 활동을 평가하였다.

전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체험의 날, 김장체험, 산타잔치 등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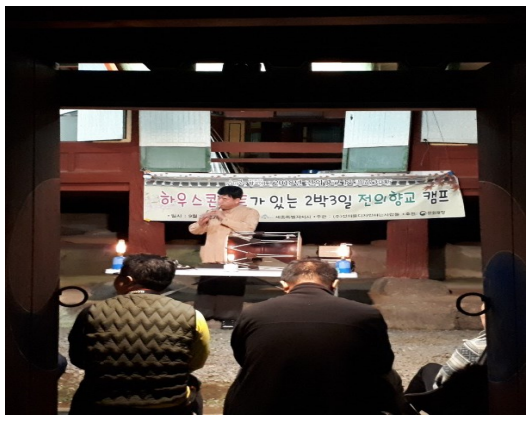
주민기자 임정희

전의향교 600여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 태어나...

세종시 전의향교 문화재청의 향교활용사업으로 전의향교가 600여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 닫아걸고 관리하는게 문화재보호로만 생각하다가 문 활짝 열어 활용으로 새롭게 문화재보호를 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전의향교 이젠 향교 고유의 기능인 배움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찾아갑니다.



연주와 해설은 퓨전국악의 종류 조성화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전의향교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에 있는 조선 전기의 향교로서 1416년(태종 16)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그뒤 임진왜란중에 소실되었다가 1684년(숙종 10) 현재의 위치에 중건하였고 1867년 1891년 1938년 1958년 1970년 1972년에 각각 중수(낡은 건축물 따위를 다시 손질하여 고침)하였다.

전의향교 대성전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7호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의면 주민기자

우리마을 이야기

제16회 왕의 물 축제 행사장 오시는 길

전의초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148번지

제16회 왕의 물 축제 타임테이블

09:45~10:00	전의면 농악대 길놀이(식전공연)
10:00~10:20	왕의물 축제 개막식
10:20~10:50	왕의물 수신제, 채수 퍼포먼스, 주제공연 "왕의 물 바람의 날개"
10:50~11:20	왕의물 OX퀴즈대회
11:20~12:00	퓨전국악공연
12:00~13:20	중식(앙로연) | 세종전통예술단 "국악한마당"
13:20~14:20	주민자치프로그램, 동호회 공연
14:20~14:40	관객참여 이벤트 "왕의물을 찾아라"
14:40~15:50	초청공연
15:50~16:00	폐회선언(먼장)

※ 부대행사: 왕의물 주제관(미디어전시), 체험놀이 운영
※ 체험행사: 풍선아트, 천연염색, 머리핀만들기 등

|주최 · 주관| 전의면 - 전의향토문화선양위원회 **|후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왕의 안질을 치료한
신비의 약수_왕의 물

전의초수

전의초수(全義椒水)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약수터로 2004년 3월 향토문화유적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전의초수는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눈병을 많이 앓아 괴로워한 세종대왕의 눈병을 고친 약수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위하여 많은 책을 읽다 눈병을 앓았었는데 장님에 가깝도록 앞을 보지 못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다.

세종26년(1444) 1월 27일 어떤 이가 와서 아뢰기를 목천, 전의, 청주에 초수가 있는데 물맛이 차고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을 내며 눈병 치료에 좋다고 아뢴다.

우선 사람을 보내어 치료케하니 효험이 있어 처음에는 청주 초정에 행궁을 짓고 치료했으나 완쾌를 보지 못하고 환궁한 후 전의초수에 행궁을 짓고 치료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해 가뭄이 심해 행궁 짓는 것을 포기하고 1년 여 동안 전의 1년 여 동안 전의초수를 매일 해질녘에 떠서 사기그릇에 담아 빠른 말로 신속히 운반토록하여 치료를 하니 그 병이 다 나았다고 한다.

지금도 전의초수는 위장병, 피부병,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고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의역사 문화탐방

왕의물축제, 세종축제 첫 팡파레를 울리다

오는 10월 6일(토) 전의면 관정리에서 세종시 시민들과 인근의 천안, 대전, 청주지역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왕의물축제를 개최한다.

왕의물축제는 2003년 제1회를 시작으로 그 모습은 도원문화제, 세종축제 등으로 달리해 왔지만 올해 전의에서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행사를 치르는 세 번째 축제가 된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창제를 위해 밤낮없이 책을 보다 눈병을 얻었는데,

옛 전의현에서 나는 톡 쏘는 맛의 초수(椒水)로 눈병이 나았다는 왕조실록의 사실을 토대로 그 역사성을 입증받은 축제로 올해 16회째를 맞이하였다.

오전 10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종축제의 처음을 알리고 수신제와 '왕의물 바람의 날개' 주제공연, 주제관 개관을 통해 왕의물이라는 축제의 취지를 알리고 있다. 초.중등 학생에게 전의에서 왕의물이라는 역사성을 알리고 전승시키기 위해 왕의물 OX퀴즈, 다양한 체험 등을 펼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국악한마당과 '왕의물을 찾아라'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

종묘제례보존회 국가전문위원 10여 명이 '초수 지신'에 대한 제향을 진행하여 왕의물 수신제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특별히 왕의물의 효험을 바탕으로 하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전의향토선양위원회 위원장(황우성)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의 백성들의 정성스런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정면, 전동면, 목천, 청주 일부분까지도 포괄하는 옛 전의현 번영을 상기시키는 세종시의 큰 축제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축제의 취지를 전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초청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함께하는 지역문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축제의 지속성속성과 방향성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부녀회, 청년회, 이장단 협의회 등 각 지역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덕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성무 전의면장은 "전의면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는 이번 왕의물 축제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 향상되고 발전된 축제가 되면 향후 전의초수의 하드웨어적 보존 방안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왕의물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간다면 향후 세종시의 세종과 관련한 문화관광지로서 세종시의 이름에 걸맞는 역사적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월 6일 아침에는 서둘러 전의로 향해봄은 어떨까. 생각지못한 세종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순 lks3110@naver.com

10월 일정 소식지 광고

10 October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30	1 국군의 날	2 노인의 날 ·축제회의 (오후 4시)	3 개천절 ·도시재생대학 시작 (오후 7시 문화센터 3층)	4 ·전의초 농촌중심지 사업설명 (오전 10시)	5	6 ·왕의물축제
7	8 한로 ·축제추진위원회의 (오후 7시 전의문화센터 3층)	9 9.1 한글날	10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7시)	11	12 ·도시재생 뉴딜 공청회 (오후 7시)	13
14	15 · 축제추진위원회의 (오후 7시 전의문화센터 3층)	16	17	18	19	20 문화의 날 골목문화축제
21 경찰의 날 골목문화축제	22	23 상강 9.15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7시)	24	25 독도의 날	26	27
29	30	31	1	2	3	4

전의신용협동조합
JEONEUI CREDIT UNION
예금,대출,보험은 신협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앞으로의 금융, 신협
전의본점 044)
T.863-5921~3
F.863-5924
소정지소 044)
T.566-0710
F.566-5676

전의농업협동조합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만족,고객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전 의 본 점 863-3100~3
FAX) 863-3990, 7760
• 하나로마트 862-4130
• 정 육 부 862-4131
• 구 매 장 863-3104
• 주 유 소 863-6520~1
• 농기구센타 862-3103
• 소정지점 FAX) 566-6065 • 하나로마트 566-6101
566-6099, 566-6100 • 정 육 부 566-6098

『행복마을 전의소식』 전의소식 광고문의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
월간신문 매월첫째주 발행
2000부 발행
부담없는가격 광고비 회당1만원 기준 싸이즈 (7.5cm×5cm)
계좌번호: 농협351-0897-6663-23 (황우성 전의활성추진위원회)
*광고금액이나 기준싸이즈는 조정기간동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의어린이집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는 영유아 전문 어린이집
TEL: 044)863-6611
FAX: 044)864-9933
웰빙환경에서 사랑으로 키웁니다.

조경희화실
기초소묘와 드로잉교실(월,금) TEL 010-4646-0539

이랑
p 044-868-3478 f 044-868-3479
e ceramicgarden@naver.com
h http://blog.naver.com/ceramicgarden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가느실길 129-4

뽀송뽀송 빨래방 운영
대상자: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TEL: 044)301-5834,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빨래방장소: 전의영당성결교회

럭키인테리어
인테리어 전문시공업체
벽지 · 장판
• 각종벽지류
• 건강바이오벽지
• 데코타일
• 사기타일
• 바닥재 모든제품
• LG · KCC · 한화
각종마루
• 몰딩 및 아트월
리모델링
• 상가인테리어
• 홈인테리어
• 버티컬롤스크린
인테리어 전문시공 상담환영
044)863-2036
044)863-2035
010-4305-2036
010-7490-2036
대표고 정 철 (위치:전의시장통)

전의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TEL. 301-5851~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갑니다